

# 드론축구,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참가

### 전주시, 내년 1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개최 'CES 2024'에 드론축구 전시·출품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가 세계 최대의 전자·IT(정보기술) 전시회에 참가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시는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드론축구 글로벌 프로모션'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주최하는 행사로, 혁신적인 제품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시회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2000여개 기업이 참

가하고 13만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으며, 2024년에는 20만 명의 관람객과 세계 150여 개국에서 2500개 이상의 혁신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시는 해외 각국 선수단이 참여하는 드론축구 시범경기를 펼치고, 100% 전주에서 생산한 드론축구 아이템을 전시하는 홍보관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드론축구 글로벌 프로모션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을 초청한 것은 물론, 한국과 유럽, 미주 등 10여 개 국가의 드론

축구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시는 2025 드론축구 월드컵의 전초전 격인 '프레월드컵 드론축구 대회'를 대륙별 순회 경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CES에서는 그 첫 걸음으로 미국과 캐나다·브라질 등이 참가하는 '팬아메리카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LVCC(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노스홀에는 드론축구 홍보전시관이 마련돼 전주발 드론축구의 탄생 스토리를 소개하고,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에 대해 안내한다.

시는 이번 CES 참가를 통해 '미래의

레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드론축구를 널리 알려 오는 2025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월드컵 전까지 회원국을 50개국 이상으로 늘리는 등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에서 시작된 드론축구가 글로벌 미래 레포츠로 자리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2025년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치러내 드론축구가 K-팝과 K-무비를 잇는 K콘텐츠의 새로운 히트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예수병원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지역인 캄프스페우 지역에서 현지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전주예수병원, 해외 의료봉사

### 캄보디아 캄프스페우 지역 방문 566명 무료 진료

전주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지역인 캄프스페우 지역에서 현지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을 여름 16명의 예수병원 의료진이 참여한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이어, 이번 활동은 캄보디아 예수병원 설립을 위한 각 분야 최정점진과 취약지역 해외 의료봉사로 지난 달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이번 해외의료 봉사단은 이정후 예수병원 재활센터장을 중심으로 14명의 의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캄프스페우 지역을 방문해 소의 계층 566명에게 무료 진료 서비스와 치료비를 제공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동행으로 현지 여성

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병행되었다.

홍상기 산부인과 과장은 "프놈펜 수도를 제외하고 여성 질환을 돌보는 의료진이 부족해 캄보디아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수병원 해외 의료봉사단은 병원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낙후된 캄보디아 의료 서비스를 끌어 올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수병원은 15년 전부터 캄보디아와 인연을 맺어 취약계층을 돌보고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봉사와 지속적인 지원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지난날에는 캄보디아 예수병원 개소를 위해 정금모 소화기내과 과장과 이유경 간호사 파송예배를 가지기도 했다.

/김옥기기자

##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 전주시보건소, 방문 교육 통해 독거노인·만성질환자 등에 한파 건강관리요령 준수 당부

전주시가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선진)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한층 강화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를 방문

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이다.

보건소 방문 전문인력들은 독거노인과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과 같은

기본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겨울철 건강 수칙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 및 충분한 영양 섭취 △실내 적정 온도·습도 유지 △외출 전 날씨 정보(체감온도 등) 확인하기 △

외출 시 따뜻하게 옷 입기(내복, 얇은 옷 겹쳐 입기) △방한용품(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사용하기 등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알리고 있다.

보건소는 올겨울 한파기간 동안 안부 전화와 수시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이상 유무를 꾸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한랭질환에 취약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높은 노인자와 만성질환자 등 745명에 대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따뜻한 내복도 지급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과보고대회 가져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지난 5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올 한해 추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향해 지난 1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인과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문화 청소년들로 구성된 어울림방

송댄스팀의 공연으로 문을 연 성과보고대회의 기념식에서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해오며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도운 김선덕 씨 등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자녀수는 각각 2910여 명과 2943명으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누적 인원 2만1000여 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

### 노사화합 소통 강조·특강 실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이하 '전중연')가 중소기업의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6일 그랜드힐스턴 3층 아이리스홀에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주시 지역 중소기업 임원과 직원 70여명이 모여 진행되었으며, '김창욱 아카데미'의 김수인 원장이 초청되어 '성찰과 공감을 통한 건강한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 원장은 노사화합의 소통을 강조 하였고,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전중연은 오는 13일에도 조서환 마케팅그룹의 조서환 대표를 초청하여 CEO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전중연 강동오 회장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회장이 위해서는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필요하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에 대해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 워크숍 포스터

여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옥기기자

## 생생한 전주 소식 전할 시민 블로그 기자 모집

### 내달 12일까지 모집... 30명 내외 선발

전주시는 공식 블로그인 '한바탕 전주 즐기기' (blog.naver.com/jeonju\_city)에 전주민의 특별한 여행, 문화, 정책, 음식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취재·발굴하고 제공할 '시민 블로그 기자'를 다음 달 12일까지 모집한다.

2012년 처음 활동을 시작한 시민 블로그 기자단은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진솔하고 생생한 전주의 이야기를 전달해왔다.

특히 2023년에는 민선 8기 '강한 경제, 전주'라는 시장 방향에 맞춰 전주의 우수 기업들을 전국에 소개하는

'기업탐방' 콘텐츠를 강화했고, 전주민의 차별화된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마을 이야기', '전주 추천 명소', '전주 맛대맛'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전주를 널리 소개해왔다.

총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인 2024년 시민 블로그 기자단은 전주에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자는 다음 달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블로그 기자로 선발되면, 전주시의 각종 문화·생활·정책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주제로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게 되며 월간 기획회의, 워크숍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옥기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10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 선화당

#### 관풍각

#### 내아